<경쟁'94 : 화학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을 다시 생각한다(Ⅰ)

중국을 떠올리면 우선 생각나는 것이 만리장성과 자금성이다. 길이가 장장 1만리에 이른다는 만리장성은 고대나 중세의 건축술을 생각할 때 그 웅대함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현대에도 그만한 규모의 성벽을 축성한다는 것이 쉽지않은 것은 물론 감히 엄두를 내지못할 것이다.
물론 진시황이 존재하던 시대에 그 공사를 마무리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고, 셀 수 없는 인력이 동원되었으리라는 것쯤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혹시 고구려가 다시 탄생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의 결과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금성도 최근 「마지막 황제」를 계기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그 웅장함과 섬세함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이다. 웅장한 기둥과 드높은 건물,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조각했다는 용과 봉황이 새겨진 각종 조각품들 그리고 호화로운 장식물 등등…
이 두가지 상징물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중국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야 하는 번민에 쌓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청나라의 지배를 받는 신세로 전락함으로써 무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만리장성을 왜 축성했으며, 자금성의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아편을 막지못했고, 일본의 만주점령과 중국침략을 저지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만리장성과 자금성에 대해 긍지를 느끼고 온세계에 자랑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쉽게 찾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중국의 사회경제를 통해 이를 조명해보는 노력은 필요하리라 본다.
중국은 얼마되지 않은 시장개방과 익숙하지 못한 시장경제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중국의 수도 뻬이징의 아침을 맞노라면 7시를 넘어서부터 자전거의 물결을 만나게 된다.
반면, 그옛날 서울의 거리를 주름잡았던 「새나라」와 비슷한 고물 택시에서부터 「링컨콘티넨탈」이라는 우리나라에서도 구경하기 힘든 고급 승용차가 뻬이징 중심가를 나란히 달리고 있다. 우리가 수출한 「소나타」나 「콩코드」·「프린스」도 중간레벨이지만 간간히 눈에 들어온다.
한달 급료가 200~300元(2만5000원 안팎)에 불과한 노동자가 대부분이고 장관 월급이 500元으로 형식적 급료의 평균화가 일상화된 상태에서 점심 한끼를 먹는데 200~300元이라는 노동자의 한달 급료를 사용하는 상류층이 3000만~4000만명에 이르고, 300만元이 넘는 「소나타」를 사기위한 허가증을 받기위해 줄서 있다는, 빈부격차를 뛰어넘는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곳도 중국이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러한 빈부격차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물론-모두가 이를 수용하고 당연시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개방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 싶다. 도시에서도 우리의 달동네와 비슷한 허름한 주택이 즐비하건만 고급주택과 30평이 넘는 아파트도 이에 못지않게 도심을 장식하고 있다. 그곳이 바로 중국인 것이다.
자전거와 고물택시와 링컨컨티넨탈이 하나의 도로에서 공존하고, 한끼를 때우는데 20전과 200元을 사용하는 격차가 엄존하는 데도 누구하나 고급차에 돌을 던지고 고급식당에 침뱉지 않는 것을 보노라면 과연 중국이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옴직하다.
중국인의 대륙적 기질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만리장성과 자금성과 천안문, 지나치다 못해 극심하기까지 한 빈부격차, 그러면서도 남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대륙적 기질일런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한 중국인들이 한국 화학산업계와 한국의 상공부(!)를 대상으로 대단히 서운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국이 그들보다 잘 살아서 인가? 아니다. 상대국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산업이 발달했다고 해서 이를 부러워 할런지는 모르겠으나, 이를 시기하고 질투할 중국인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이유로 한국인 아니 한국 화학산업이 무심하다고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인가.

화학산업 관계자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겠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해부족을 탓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름아닌 한국 화학산업계가 지나치리만큼 자국과 자기만을 생각한 나머지, 지나치게 이해득실에 매달려 아니 대국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반덤핑 제소 등 후진수준에 머물러 있는 중국 화학산업을 끌어안지 못하고 적대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느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아니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15억 수요처를 현재와 같은 상태로 그냥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들을 붙잡고 그들과 같이 하기를 희망하는 나라는 수없이 많음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동반자적 관계를 회복하고, 한국과 중국이 태평양시대를 이끌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화학저널 1994/10/3>